

4년앞 U대회 '평창 쏘림' 걱정된다

8월 대구육상·2014 인천 아대회·2018 동계올림픽 국제스포츠이벤트 줄줄이...국비 지원 쉽지 않을 듯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가 4년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의 첫 국제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무엇보다 시설 및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과 기업 스폰서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근 유치가 결정된데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준비한 국제이벤트 속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광주U대회에 대한 중앙정부나 대기업의 지원과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이벤트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역량을 집중시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U대회 조직위와 광주시는 11일 "4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U대회에

모두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필요한 국비를 제 때 조달하고 대기업 스폰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와 광주시는 올해 광주U대회 예산 400억원을 시작으로, 시설비 4307억원 등 모두 1조원 규모의 예산 중 30% 안팎으로 추정되는 국비를 차질없이 지원받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3년 뒤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국비 지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U대회의 국비 요구액은 인천의 3분의 1 수준으로 신규 경기장 건립을 최소화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며 "다만 국비 지원비율이 제한돼 있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70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대회 시설 및 운영비의 30%만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대기업 스폰서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시

의 부담은 줄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011년 상반기 771억원 수준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대회 이후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광주시의 지방채가 급증할 경우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제2순환도로 관리운영권 회수 등의 현안 사업도 줄줄이 미뤄질 수 있는 실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대기업 스폰서 유치에 흥행의 핵심으로 재정 운용의 솜씨를 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 내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중장기 재무마련 방안을 수립하고 2013년 스폰서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직위는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와 KDI의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후 '광주U대회 관련 시설 설치·이용 계획'을 수립한 뒤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승인받을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대회명	개최지	참가국	선수단 규모	기간	종목수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170여개국	2만여명	8.27~09.4(9일간)	1(육상 25개경기)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212개국	6,000여명	9.19~10.4(16일간)	21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45개국	1만3,000여명	7.1~7.13(잠정, 13일간)	35
2018 동계올림픽	평창	미정	미정	2.9~2.25(잠정, 17일간)	미정

2015 U대회 7월1~13일 개최

광주조직위원회 일정 잠정 확정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의 대회 일정이 2015년 7월1일부터 13일까지로 잠정 확정됐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그동안 개최도시의 결정이 수정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광주U대회는 이 기간에 치러질 전망이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 "전체적인 대회 준비와 대학의 학사일정 등을 감안해 대회 개최기간을 2015년 7월1일부터 13일까지로 정해 FISU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대회 이전까지 마스터플랜에 맞춰 경기장 개보수, 스폰서 유치, 신규 경기장 건립, 선수촌 완공 등

1만2000여 개에 이르는 실행 과제를 선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FISU와 협상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한편 2014년 스포츠 교육문화분야의 대규모 학술행사인 포럼 개최를 위한 논의도 시작했다.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은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운영과 흥행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고 뼈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역 내 역량을 끌어올리고, 대회 흥행을 위한 스폰서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대선후보 100% 국민경선...총선후보 국민경선+배심원제

민주 개혁특위 공천개혁 초안 확정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선출하고, 총선 후보는 완전국민경선에 배심원제를 결합하는 방식의 공직후보 선출안 초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 개혁특위는 10일 오후 전

체회의를 열어 특위 차원의 공직·당직선거 개혁안 논의를 마무리했다고 김영근 부대변인이 11일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당내 계파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최고위원회의 등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혁특위는 우선 대선 후보 선출시 일반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도입하되 특정 지역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득표를 산정시 투표자의 50%에 대해서는 지역별 인구편차를 감안한 보정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선 후보는 당 공천심사위원

회에서 2배수나 4배수나 압축한 뒤 70% 지역에서는 완전국민경선을 적용하고 나머지 30% 지역에서는 배심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배심원제 적용지역의 경우 완전국민경선 70%, 배심원 평가 30%를 반영해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개혁특위는 또 여성의 정치 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여성

후보 공천을 늘리기로 했으며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남녀 1인씩을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포함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대의원 20%, 당비납부 당원 30%, 일반 당원 50%의 비율로 투표 실시하고, 대의원의 50%는 여성에 할당하기로 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인학 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http://dy.dynastycc.co.kr

새롭게 태어난 골프공전에서 당신의 품위를 맘껏 누리세요

2개홀 티박스 확장.라커 대리석 단장 등
담양다이너스티CC로 귀하를 초대합니다

- VVIP 고객만의 특별한 혜택
 - 스위트룸은 한실, 거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급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서비스가 제공됨.
 - 노래방, 당구장, 헬스장 등 편의시설이 완비됨.
-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
 - 꽃보다남자, 아가씨를 부탁해, 대물, 프리지던트 등 촬영지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명문 골프장으로 레이디캐슬로도 불린다.

꽃보다남자, 아가씨를 부탁해, 대물, 프리지던트 등 촬영지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명문 골프장으로 레이디캐슬로도 불린다.

꽃보다남자, 아가씨를 부탁해, 대물, 프리지던트 등 촬영지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명문 골프장으로 레이디캐슬로도 불린다.

담양 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산 79

| 대표전화 | 061-380-7500 | 예약전화 | 061-380-7600~1